

보도 일시	2022.4.7.(목) 조간 2022.4.6.(수) 11:00	배포 일시	2022. 4. 6.(수) 06:00
담당 부서	항만국 항만개발과	책임자	과 장 이상호 (044-200-5630)
		담당자	사무관 김기현 (044-200-5938)

광양항 낙포부두, 더 안전한 항만으로 거듭난다

- 해수부, 4.7.(목)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사업 발주 -

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은 노후화된 광양항 낙포부두의 시설을 개량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1,795억원을 투입해 ‘광양항 낙포부두 개축사업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낙포부두는 1979년 10월 개장한 이래 매년 650만 톤 이상의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처리하여 인근 석유화학공단에 공급하는 등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 하지만, 개장한지 42년이 경과해 내용연수(40년)를 초과하여 바닥 하부 콘크리트 철근이 부식되는 등 더 이상 유지보수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.

* 화물 처리량 : ('18)754만 톤 → ('19)740만 톤 → ('20)695만 톤 → ('21) 662만 톤

이에 해양수산부는 2010년 선제적으로 항만재개축 계획을 수립하였고,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‘광양항 낙포부두 개축사업’ 계획을 수립하였다. 해양수산부는 총사업비 1,795억 원을 투입하여 4개 선석을 갖춘 부두로 새단장*할 계획이다. 또한, 현재 부두 하부에 설치된 석유화학제품 이송관을 상부로 옮겨 더 자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, 내진 1등급을 적용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성도 보장할 계획이다.

* 기존 5선석 중 1개 선석은 유지하고, 4개 선석을 제거한 후 더 큰 3개 선석 설치

이번 ‘광양항 낙포부두 개축사업’은 4월 7일(목)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입찰 공고, 현장설명회, 설계 심의, 본격 착수 등의 과정을 거쳐 2028년 준공될

예정인데, 개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부두를 제거하고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하였다. 개축공사가 완료되면 인근에 위치한 남해화학 등 30개 이상의 화학공장에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더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등 30년간 매년 약 1,528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“안전하게 항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항만을 제때 개축하는 것이 필요하다. 이번 사업을 통해 광양항을 더 안전한 항만으로 변모시켜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과 활용성을 증대시키겠다.”라고 말했다.

참고1

광양항 낙포부두 개축사업

1

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노후 항만시설의 개선(성능, 수명연장)을 통해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, 항만 이용자 편의증진 및 부두 활용성 증대
- (사업위치)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낙포부두 일대
- (사업기간/사업비) '22.~'28. / 179,485백만 원
- (사업내용) 낙포부두 3선석 개축(780m)

2

추진경위

- '10. 4. :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선 및 Port Renewal 기본계획 수립(국토부)
- '19. 8. : 예비타당성조사 완료(B/C 0.85, AHP 0.536)
- '20. 3. ~ '20.12. : 기초조사용역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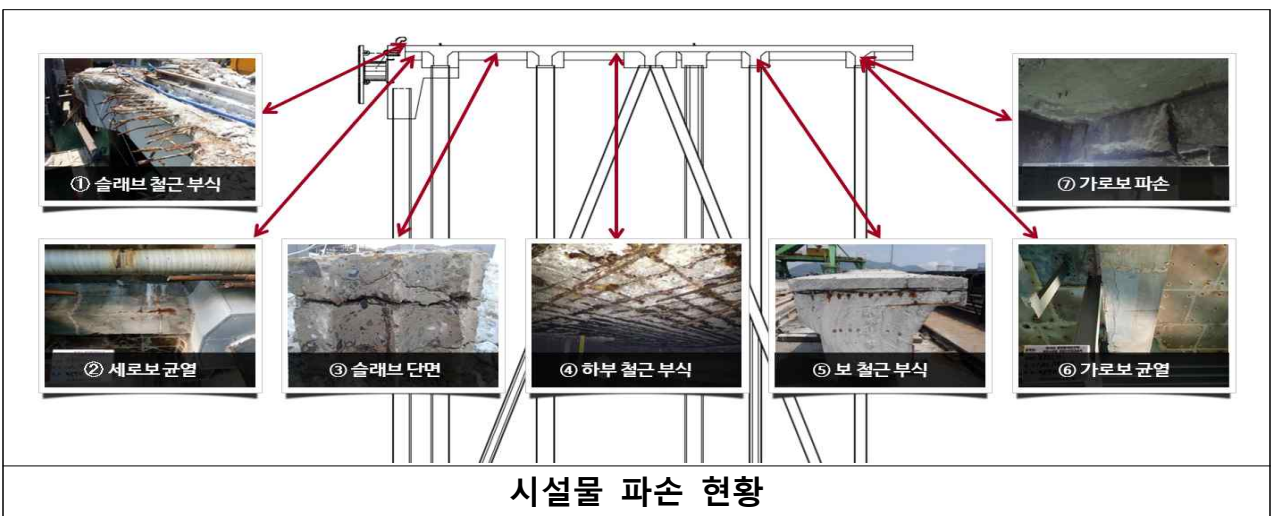
위치도



□ 현황사진



하부배관 설치 현황



시설물 파손 현황